

# 일본현대시를 통한 비유표현 수업방안

남 이 숙\*

(e-mail : ysnam@kunsan.ac.kr)

##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2.2 은유의 개념과 시 속에서의 의미 작용  |
| 2. 본론                    | 2.3 일본현대시를 통한 직유와 은유 수업전략 |
| 2.1 직유의 개념과 시 속에서의 의미 작용 | 3. 나오며                    |

キーワード：日本現代詩(Modern Japanese poetry), 直喩(simile), 隱喩(Metaphors), 授業(Lesson), 詩作(Poetry Writing)

## 1. 들어가며

필자는 최근 몇 년간 일본현대시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시를 교재로 수업할 경우 보통 본문을 독해하고 감상을 논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 수강생에게서 <현대시는 난해해서 피하려 했는데 들을 과목이 없어서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해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해야 할까 고민에 빠졌다. 학생들이 시 수업을 어렵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비유와 상징을 많이 사용하는 시세계가 애매하고 다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와 다른 방법으로 수업에 접근해야 한다. 시도 미술이나 음악과 같은 예술작품이다.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표현기법은 매우 중요하다. 시 역시 표현기법에 관해 주목하게 하면 차원이 다른 감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시인이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표현기법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인들이 선호하는 표현기법은

\* 군산대학교, 교수, 일본문학

무엇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비유법을 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비유표현에는 직유 은유 제유 환유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직유와 은유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일상어 속에서의 직유와 은유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러한 표현들이 시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나아가 직유와 은유표현을 풍부하게 사용하고 있는 일본현대시를 선정하여 언어교육의 측면에서 비유표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학생들에게 비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수업전략에 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 2. 본론

### 2.1. 직유의 개념과 시 속에서의 의미 작용

세계는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촉발된 3차 산업혁명인 지식 정보 혁명에 이어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인간과 사물의 데이터가 수집·축적·활용되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에 지식의 습득은 꼭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의 활용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대학에서 행해지는 수업 또한 지식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사고력과 창의력을 갖게 해야 하는데, ‘비유표현’ 역시 이에 부합하는 주제라고 생각된다. 배상문씨가 언급하듯이 ‘잘 만들어진 비유를 들을 때, 갑자기 하나의 세계가 육박해 들어오고, 새로운 감각의 문이 벌컥 열리는 듯한 경험<sup>1)</sup>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비유’란 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개념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핵심질문을 하는 것은 수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비유란 개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동양에서 비유에 해당하는 용어는 처음에는 비(譬), 비(比)라는 말을 써왔다. 서양에서 비유를 의미하는 트롭(trope)은 그 어원에 전환(turn)이라는 뜻이 있

1) 배상문(2014), 『비유의 발견』, 북포스, p.7

다. 『웹스터사전』(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66)에는 “어떤 관념에 생명을 부여하거나 강조하기 위하여 그 말에 속하는 원래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쓰는 말이나 표현의 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2)</sup>

먼저 알기 쉬운 비유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 일본어 표현을 겹쳐서 가르쳐 줘야 하는 수업이므로 예를 일본어로 들어 보자.

일본어에서는 ‘母は鬼のようだ・あたかも○○のごとく・まるで天使みたいだ’라든가의 표현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어로도 <물이 얼음장 같다>라든가 <저 아이는 인형처럼 귀엽다>와 같은 표현을 직유로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일장에서 많이 쓰이는 <마치~과 같다> <흡사~인 양> <~처럼>과 같은 설명이 붙는 표현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런데 이처럼 유사한 것을 빌려다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네 엄마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무섭기는 한데 그 느낌을 뭐라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럴 때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엄마는 도깨비 같다(母は鬼のようだ)’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사고나 감정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무엇인가 비근한 예를 찾아 표현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비유란 이처럼 새로운 발견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직유는 이미 속담이나 일상어 속에 많이 쓰이고 있어 특별한 재능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도 별다른 노력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취급하기 쉬운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조선일보의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트럼프와 함께 일하는 건 벼랑 끝을 영원히 걷는 것과 마찬가지다.<sup>3)</sup>

이러한 표현들은 장식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추론을 이끌어낸다. <트럼프와 일하는 건 늘상 위험이 따른다>는 표현과는 다르다. 듣는 사람들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벼랑 끝을 영원히 걷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상상력을 동원하고 연상의 범위를 확장시킬 것이다.

문학작품의 경우, 더욱 참신한 것들이 많아 창의성을 향상시키거나 연상 작용을 풍부히 하기에 도움이 된다. 다음의 三好達治 「土」를 감상해 보자.

2) 문덕수(1996), 『시론』, 시문학사, p.153 재인용

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6/201809060025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6/201809060025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검색일: 2018.09.06.)

蟻が/ 蝶の羽をひいて行く/ ああ/ ヨットのやうだ。

(詩集『三好達治詩集』1951年刊)

개미가 나비의 날개를 끌고 가는 모습을 요트의 모습에 비유해 새로운 시각을 촉발하고 있다. 얼마나 기발한 발상인가. 자신보다 커다란 나비 날개를 운반하는 개미의 모습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시인의 느낌이 오롯이 전달되고 있다. 이질적인 두 사물의 유사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관찰하여 비유시를 탄생시키고 있다.

직유는 우리의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 시는 국토를 빼앗긴 암담한 현실에서 느끼는 비애와 울분이 화사한 봄 들판의 정경과 대비되면서 시인의 독백형식의 강렬한 어조를 통해 진솔하게 드러난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중략…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뻐하다.

…중략…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진 젓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밭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후략…

(『韓國의 名詩』 종로서적 1984년)

지면의 제한이 있어 전체 내용이 훼손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직유와 관련된 부분만 인용해 보았다. 그 중 직유를 사용한 부분만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가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보리밭) 너는 삼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살찐 젓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이 시에서 쓰인 가르마와 논길, 아가씨와 종다리, 보리밭과 삼단 같은 머리털, 살찐 젓가슴과 흙은 서로 다르면서도 닮은 요소를 결합시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의 결합을 통해 이 시에 나타난 우리 국토와 자연은 실제보다 훨씬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화사한 것으로 탄생하게 된다. 시인의 의도적인 비유를 사용한 시어구사(詩語驅使)로 비록 나라는 빼앗겨 얼어붙어 있을망정 우리에게 민족혼을 불려일으키는 봄의 풍경은 빼앗길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다음은 세련된 시어와 확실한 운율로 온화한 정감을 느끼게 하는 영국을 대표하는 크리스티나 로세티<sup>4)</sup> 시이다. 시인이 15, 16세 무렵 읊은 시로 제목은 ‘생일’이다.<sup>5)</sup>

わたしのころは、みずみずしい若枝(わかえ)に  
巢ごもって歌う小鳥のよう。  
わたしのころは、枝も撓(たわ)まんばかりに  
よき果(み)をつけたりんごの木のように。  
わたしのころは、冬至のころの海風(うみなぎ)に  
水あそびする虹色の貝のよう。  
わたしのころは、それらにもましてうれしいの。  
なぜって、人恋うことを知りそめたのですもの。

わたしのためにしつらえてほしいの、絹と羽毛とでできた雛壇を。

4) Christina Georgina Rossetti, 1830년12월5일 - 1894년12월29일 런던 출생. 《왕자의 순력(巡歴) Prince's Progress》(1866)과 때문지 않은 순결한어린이의 마음을 노래한 동요시집 《창가(唱歌) Sing-Song》(1872) 《신작 시집 New Poems》(1896) 등 발표

5) [https://torunotabi.at.webry.info/200609/article\\_9.html](https://torunotabi.at.webry.info/200609/article_9.html) 2018. 9.16, 齋藤正二 일본어 번역을 참조

そこに飾りたててほしいの、鳩の模様を、ぎくろの模様を。

蛇の目ちらしの孔雀の模様を。

そこに細工をちりばめてほしいの、金銀のぶどうのかたちを。

葉をあしらった銀の百合のすがたを。

2연의 마지막 두 행에서 볼 수 있듯이 여인의 생명은 사랑하는 것을 포용하고 보호하는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나날이 새로워진다. 나아가 그 진실에 눈을 떴을 때의 감동은 강렬하다. 1연은 사랑의 감정에 사로잡힌 자신을 내 마음은 싱싱한 어린 가지에 깃들여 노래하는 새 같고 내 마음은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좋은 열매를 맺은 사과나무 같고 내 마음은 동지 무렵 잔잔한 바다에서 물놀이하는 무지개 색 조개와 같다고 직유 표현을 통해 기쁨과 희열에 가득 찬 느낌을 부드러우면서도 온화하게 전달하고 있다.

직유가 아니면 이처럼 생생한 전달이 가능할까.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직유에 관하여 은유보다 가치가 낮다’<sup>6)</sup>고 단정 짓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상식적으로 결코 유사성이 없는 것에서 닮은 점을 찾아내 이처럼 연결 지어 표현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창의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인이 발견해내는 직유란 이처럼 상식적으로 전혀 유사성이 없는 것의 유사성을 창조해내는 표현이다. 요컨대 직유에 의해 유사성을 성립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시에서 참신한 표현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창의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표현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 2.2. 은유의 개념과 시 속에서의 의미 작용

직유와 달리 은유란 <그는 늑대다> <당신은 나의 태양> <백악관은 미친 동네><sup>7)</sup>와 같은 표현이다. <그는 늑대다>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그는 늑대다>의 경우 듣는 사람은 그 표현에서 위화감을 느끼게 된다. 은유란 일단 상대방을 당혹하게 해서 다른 추론이나 사고를 하게 하는 기법이다. 다음 단계

6) <http://balloon-rhetoric.atwebpages.com/example/simile.html> (검색일: 2018.9.8.)

7) 주4)의 신문기사에서 인용.

에서 그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인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것이 비유임을 깨닫고 늑대와 같은 그 인물의 어떤 속성에 관해 생각하게 되고 다시 그가 어떤 면에서 늑대와 공통점이 있는지 곰곰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 그렇게 단정함으로써 양자의 관계를 암시적으로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은유는 낱말의 속성이 아니라 개념의 속성이다. 은유는 단지 예술적 혹은 미적 목적만이 아니라 어떤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은유의 이러한 측면은 1980년 레이코프와 존슨의 초기연구인 『삶으로서의 은유』에 의해 알려졌는데 그들의 착상은 ‘은유에 대한 인지언어학적인 견해’로 학계에 알려져 있다.<sup>8)</sup> 이렇게 보면 일상적으로 하는 표현으로는 하기 힘든 어떤 사항을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또는 쉽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침묵은 금이다> <인생은 드라마다> <빛 좋은 개살구>처럼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도 은유를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 이런 표현의 경우, 내용은 잘 전달되지만 너무나 익숙해서 감동적이라거나 참신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학에서의 은유는 이처럼 간단하지는 않다. 鮎川信夫씨는 시의 은유에 대하여 ‘은유는 시에서 중요한 표현이며 말을 깨어나게 하는 독특한 방법이다(隱喩は、詩にとって大切な表現であって、言葉を目覚めさせる独特の方法である)’라고 하며 평범한 관용적 세계의 표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sup>9)</sup> 은유는 언어의 습관화된 일상성을 깨고, 새로운 감각,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열어준다는 것이다.

시 속에서 은유를 잘 사용하는 좋은 예는 칠레의 작가 안토니오 스타르메타가 쓴 『파블로 네루다와 우편배달부』에 잘 나타나 있다.<sup>10)</sup> 이야기는 틀에 박힌 삶을 사는 주인공 마리오가 문학상을 받은 민중시인 파블로네루다에게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편배달부가 되면서 시작된다. 마리오네 네루다란 존재를 알게 되면서 그의 시집을 사 읽게 되고, 편지를 배달해 주며 시를 배우는 과정에서 시인의 핵심사상인 은유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간다. 그러는 와중에 마리오네 베아트리카란 여인을 사랑하게 된다. 연애사건 발단 이전에는 ‘비가 온다’를

8) Zoltan Kovecses 저 이정화·우수정·손수진·이진희역(2003), 『은유』 한국문화사, p10

9) 鮎川信夫(1965), 「比喩論二題」 『鮎川信夫詩論集』, 思潮社, p.183

10) 안토니오 스타르메타 글 · 권미선 옮김, 『파블로 네루다와 우편배달부』, 사람과 책, pp.9-196

‘하늘이 운다’라는 정도로 간단한 은유 표현밖에 하지 못했던 그가 연인 베아트리체를 사랑하면서 네루다 시인과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어 그녀의 미소를 나비의 날갯짓으로 장미로 또 은빛 파도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은유는 베아트리체의 마음을 사로잡을 도구이자 사랑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물이 된다. 일상적인 표현밖에 할 수 없었던 마리오에게 은유는 세계를 참신하게 나타낼 수 있는 훌륭한 표현기법이 되고 이를 통해 마리오는 연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은유는 표현기법만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보는 인식의 틀을 제공한다. 마리오네 네루다가 처음에 섬의 아름다움에 관해 물었을 때 연인의 이름밖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은유를 알고 나서는 나무를 스치는 바람 소리, 파도가 해안가에 부딪히는 소리, 아버지의 어망 등을 거론한다. 연인을 둘러싸고 있는 섬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이다.

은유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회에 관한 인식도 달라진다.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삶을 살아왔던 그가 은유를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된 것이다.

이 작품 속에서의 은유표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해 주고, 자신을 둘러싼 인간과 자연, 나아가 사회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인 장석주는 『은유의 힘』에서 시가 생성되는 비밀의 핵심을 은유라고 보고 ‘시는 말의 불모이고 시의 말들은 필경 은유의 불모다. 은유는 시의 숨결이고 심장박동, 시의 알파이고 오메가다’<sup>11)</sup>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에서 은유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시인은 낯선 표현을 사용하여 일상어와는 다른 어법으로 노래한다. 김동명의 <내 마음은>이란 시를 예로 보자.

내 마음은 호수(湖水)요,  
 그대 노 저어 오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옥 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라.

11) 장석주(2017), 『은유의 힘』, 다산책방, p.8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 문을 닫아 주오.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어,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중략...

내 마음은 낙엽이요,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  
이제 바람이 일면 나는 또 나그네같이, 외로이  
그대를 떠나오리다.  
(『韓國의 名詩』 종로서적 1984년)

다양한 비유와 적절한 어조를 활용하여 사랑을 감미롭게 노래한 서정시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은유를 활용하여 네 가지로 형상화하였다.<sup>12)</sup>

1연에서 화자의 마음은 ‘호수’로 표현된다. ‘내 마음’이 ‘호수’로 형상화되자 “그대 저어 오오”라는 표현이 가능해진다. 내가 당신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어서 그대가 오면 나는 “옥 같이/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라”고 표현하여 사랑의 격정적인 기쁨을 그리고 있다.

2연에서 화자의 마음은 ‘촛불’로 표현된다. 이제 시적 공간은 자연스럽게 촛불이 타고 있는 공간으로 전환된다. 이 전환은 “그대 저 문을 닫아 주오”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고 당신의 관심과 사랑을 원한다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어 나는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라”라고 표현하여 사랑의 희생적인 정열을 그려내고 있다.

4연에서 화자의 마음은 ‘낙엽’이 된다. 이제 시적 공간은 낙엽이 떨어지는 뜰이다. 그리고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를 수 있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낙엽의 운명은 오래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나는 또 나그네같이, 외로이/그대를 떠나겠다”는 서술로 이어진다. 곧 이별하는 아픔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1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21888&cid=46645&categoryId=46645> (검색일:2018. 09. 15.)  
시해석 참조

만약 시인이 은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떤 시가 탄생했을까. 이와 같이 격조 있으면서도 아름답고 감미로운 서정시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은유는 이처럼 말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비유법이다. 만약 여기서 직유인 ‘내 마음은 호수와 같다’는 명시적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될까. 산문적인 어조가 되어 아마도 다음 행에 이어지는 청유형이나 의지적 어조와도 어우러지지 않아 엉거주춤한 상태의 시가 되었을 것이다. 은유는 이처럼 짧은 말 속에 묵직한 의미를 담을 수 있고, 생각과 감정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도 있다.

그렇다면 일본인이 아닌 우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 은유는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우선은 쉬운 시부터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시를 대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黒田三郎의 「紙風船」이란 시이다.

落ちてきたら/今度は/もっと高く/もっともっと高く/何度でも/打ち上げよう/美しい願いごとのように  
(詩集『もっと高く』1964年刊)

시를 두세 번 반복해서 읽고 난 후에는 먼저 질문을 던지는 쪽이 수강자의 사고력을 확장시키는데 좋을 것이다. 쉬운 시이므로 이 시를 두세 번 가량 읽게 하고 종이풍선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게 해 보자. 의외로 학생들은 거의 대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종이풍선은 입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부풀리게 되어 있다. 손으로 튕겨 올릴 때마다 동그란 형태가 점점 줄어들어 결국에 튕길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후하고 입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다시 시작한다.

이 시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종이풍선’, 실제의 종이풍선만을 상징하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소망’일 수도 있다. 처음에는 기세 좋게 튕겨오르는 종이풍선처럼 우리들의 소망도 계속 부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이 점점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부딪쳐 형태가 이지러지고 보잘 것 없이 구겨져 버리는 소망…。 그렇지만 어떤 현실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망을 빼앗을 수는 없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칠전팔기 몇 번이고 도전해 보는 정신을 가져 보자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지 않은가.

다음의 다카미 준(高見 順)의 시를 보자.

手ぬぐいは/乾くそばから/濡らされる/手ぬぐいは/濡れるそばから/乾かんとする

(詩集 『もっと高く』 1964年刊)

이 시는 행간 그대로의 의미를 보면 수건의 본질인, 젖었다가 마르고 말랐다가 젖게 되는 단순한 반복을 읊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 과연 이렇게만 감상해야 할까. 일상어는 시를 이루는 자양분이 되지만 시인의 표현은 일상어 수준에서 해석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 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왜냐 하면 시는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나 어법 속에 또 다른 도약과 비밀의 세계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 제목 또한 「生」으로 되어 있다. <수건>을 소재로 수건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만 인생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수건이라는 물건의 사명이 젖었다가 마르고 말랐다가 젖는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인간의 경우 한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난관이 앞을 막아선다. 이처럼 회로애락이 늘 반복되는 인생을 수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시마오카 신(嶋岡晨)의 <虻>란 시의 은유표현도 살펴보자. 지면의 제한으로 1, 2연만 소개한다. (하선은 필자)

落石におびえつつハーケンを打ち  
雷鳴におののく手でザイルをたぐり  
あせにまみれてよじ登った山

いつもはおとなしいが  
暴れだしたら手のつけられない  
大きな牛  
ぼくらはそのかたにとまった  
虻みみたいなものだ

(詩集 『嶋岡晨詩集』 1986年刊)

1,2연은 조심스럽게 큰 산을 오르는 인간의 모습을 소의 어깨 위에 앉은 등에게 비유해 묘사하고 있다. 이어지는 3,4연 본문은 생략했지만, 큰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도전할 때 등예(인간의 비유)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마음은 커

지므로 이처럼 전력을 기울이는 자신을 때때로 역경에 처하도록 하고 싶다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를 독해할 때도 먼저 <은유표현을 사용한 곳은 어디이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밑줄 친 大きな牛이며 큰 산을 비유한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은유표현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질문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작자가 왜 산을 큰 소에 비유했는지 물어야 한다. 작자의 경우, 詩想이 애매해질까 봐 친절하게 <늘 점잖하지만 날뛰기 시작하면 손을 댈 수 없는 큰 소>로 수식하며 은유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거론하며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지 어떤 사실을 연상시키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험한 산을 오를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거론할 것이다. 나아가 작품의 주제와 관련지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등정에 성공하면 정상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이나 성취감은 특별하다는 점에 관해서도 토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와 연관 지어 어려운 시합이나 난관 등을 앞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자신의 투지와 인내심으로 세심함과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극복했을 때 맛보는 기쁨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시적언어로 쓰이는 비유는 이와 같이 사실을 넘어서서 상상력과 사유의 공간을 확장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옥타비오 파스에 의하면 시인은 일상적인 일들, 그리고 그것들과 맺고 있는 연관관계에서 말들을 뿌리째 뽑아내어 일상적 언어의 획일적인 세계와 결별시킨다고 한다.<sup>13)</sup> 이때 비로소 단어들은 이제 막 태어난 것처럼 생생한 것이 된다고 한다. 시어가 일상어 내지는 일상어의 비유와 다른 점은 이와 같이 시적은유를 통해 상상력의 내적 지평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 2.3. 비유표현이 풍부한 일본현대시를 통한 직유와 은유 수업방안

그렇다면 실제 수업에서 어떤 시를 이용해서 비유법을 이해시켜야 할까.

필자가 담당할 수업은 대학 3학년 과정의 수업으로 한 학기 15주, 1주에 3시간 단위로 진행된다. 이 중에 비유법이란 주제로 하는 수업은 수강학생의 레벨

13) 옥타비오 파스 지음 · 김홍근 김은중 옮김(1998), 『활과 리라』, 솔, p.47

에 따라 약 5시간정도를 할애해 진행해 볼 생각이다.

이미 비유법에 관하여 앞에서 한국시 내지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시를 예로 들어 언급했다. 처음 약 2~3시간을 할애하여 이러한 시를 예로 들어 직유와 은유가 어떻게 다른지, 시에서 직유와 은유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의미작용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 단계에서 교수자는 이번 주제가 비유표현인 만큼 직유와 은유를 많이 사용한 시를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일어일문학과 3학년이면 일본어 능력시험 2급에 합격한 학생들이 상당수 있으므로 시에 사용되고 있는 어휘 레벨도 고려하여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시를 골라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제 면에서 시의적절하고 시어가 아름답고 리듬감이 있으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심사숙고해 선정한 시가 新川和江의 「わたしを束ねないで」라는 시이다. 新川和江 시인은 시풍이 화려하며 ‘比喩の詩人’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시 속에 다채로운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의 시 「比喩でなく」에는 그녀의 시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水蜜桃が熟して落ちる 愛のように  
 河岸の倉庫の火事が消える 愛のように  
 七月の朝が萎える 愛のように  
 貧しい小作人の家の豚が痩せる 愛のように

おお  
 比喩でなく  
 わたしは 愛を  
 愛そのものを探していたのだが

愛のような  
 ものにはいくつか出会ったが  
 わたしには拙めなかった  
 海に漂う藁しべほどにも このてのひらに  
 わたしはこう 言いかえてみた  
 けれどもやはり ここでも愛は比喩であった

愛は 水蜜桃からしたたり落ちる甘い雫  
 愛は 河岸の倉庫の火事 爆発する火薬 直立する炎  
 愛は かがやく七月の朝  
 愛は まるまる肥える豚……  
 わたしの口を唇でふさぎ  
 あのひとはわたしを抱いた  
 公園の闇 匂う木の葉 迸る噴水  
 なにもかも愛のようだった なにもかも  
 その上を時間が流れた 時間だけが  
 たしかな鋭い刃を持っていて わたしの頬に血を流させた  
 (詩集『新川和江詩集』1975年刊)

이 시에는 각 연마다 다채롭고 신선하며 고도로 세련된 비유법이 등장하고 있다. 1연은 직유로 자신의 사랑을 묘사하고, 2연에서는 직설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힘들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3연에서는 사랑과 같은 것은 몇 번인가 마주했지만 그걸 표현하려고 하니 역시 비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한다. 4연에서는 사랑의 느낌을 다시 은유로 바꾸어 표현한다. 5연에서는 그러나 어느 날인가 그는 내 입술을 덮고 나를 안았다. 이렇게 사랑의 행위 그 자체를 비유 없이 직설적으로 노래하면서도 결국 ‘공원의 어둠, 향기를 발하는 나뭇잎, 솟아오르는 분수 모든 것이 사랑 같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랑과 같은 것은 과거 시간의 기억에만 새겨져 내 뺨에 피를 흐르게 했다고 추억해내고 있다.

결국 이 시인은 시로 쓰고자 하면 비유로밖에 묘사할 수 없었음을 일부러 ‘비유가 아니면(比喩でなく)’ 이란 제목의 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 시에서처럼 ‘사랑은 행위를 통해서 입술을 덮고 나를 안았다’는 정도로 묘사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행위만의 묘사로 시가 완성이 될까. 아마도 인간의 몸에 비유한다면 뼈다귀만 보는 형상일 것이다. 풍경으로 치면 삭막하고 황량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비유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신의 사랑의 느낌이나 감정 역시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시인이 전하는 메시지일 것이다.

新川시인의 시는 이처럼 비유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직유와 은유의 표현기법을 수업의 주제로 삼을 경우 텍스트로 하기에 적합하다. 그 중에서 시의 적절하고 비유를 많이 사용한 작품을 들라면, 필자는 망설이지 않고 ‘나를

묵지 마세요(わたしを束ねないで)'를 추천하고 싶다. 작품 속에 들어 있는 시어 수준도 일어일문학과 3학년 레벨에 적당하기 때문에 비유법 이해의 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느껴진다.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わたしを束ねないで  
あらせいとうの花のように  
白い葱のように  
束ねないでください わたしは稲穂  
秋 大地が胸を焦がす  
見渡すかぎりの金色の稲穂

わたしを止めないで  
標本箱の昆虫のように  
高原からきた絵葉書のように  
止めないでください わたしは羽ばたき  
こやみなく空のひろさをかいさぐっている  
目には見えないつばさの音  
... 3연 中略...

わたしを名付けないで  
娘という名 妻という名  
重々しい母という名でしつらえた座に  
坐りきりにさせないでください わたしは風  
りんごの木と  
泉のありかを知っている風

わたしを区切らないで  
 , や . いくつかの段落  
そしておしまいに「さようなら」があったりする手紙のように  
こまめにけりをつけないでください わたしは終りのない文章  
川と同じに  
はてしなく流れていく拡がっていく一行の詩  
(詩集『新川和江詩集』1975年刊)

이 시는 전체가 5연으로 되어 있으며 각 연은 6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재율을

가진 구어자유시이다. 수업의 시작은 일본어로 된 시이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를 먼저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 수업의 목적이 서론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시인의 표현기법에 주목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언급은 피하고자 한다.

- 먼저 일단 수업이 시작되면 몇 번이고 음독하게 하여 시의 특징을 파악하게 지시한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여러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가능하면 일본어로 발견한 사실을 이야기하게 한다.

- 同じ言葉が繰り返されている。

わたしを○○ないで

○○のように

○○のように

○○ないでください わたしは○○

- いくつかのまとまりがある。 1 연 束ねないで/2 연 止めないで/3 연 注がないで/4 연 名付けないで/5 연 区切らないで

- 稲穂とか昆虫とか、日常生活に近い言葉が使われている。

- 「ように」의 표현 자주 사용. 「わたしは○○」 부분은 명사로 끝남

- 「わたしは○○」의 후반부는 앞부분의 내용과 대조적임

1 연 束ねないで 稲穂 (見渡す限り)

2 연 止めないで 羽撃き・つばさの音 (空の広さ)

3 연 注がないで 海・ふちのない水

4 연 名付けないで 風

5 연 区切らないで 終りのない文章・はてしなく流れていく詩

- 이 시에 쓰인 비유법 중 직유와 은유표현에 관해 질문한다.

- 시 속의 직유표현을 찾아보자.

あらせいとうの花のように/白い葱のように/標本箱の昆虫のように/ぬるい酒のように 등

- 직유표현이 가져다주는 효과에 대해 질문한다.

이러한 표현이 생략되고 ‘1 연 束ねないで/2 연 止めないで/3 연 注がないで ~’의 표현만으로 시가 완성되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詩人の主張や伝えようとするメッセージがはるかに弱くなって訴える力がない詩になる可能性が高い

- 시 속의 은유표현을 찾아보자.

각 연의 4행 わたしは○○로 표현이 통일되어 있는 부분

1연 わたしは 稲穂/ 2연 わたしは 羽撃き・つばさの音/ 3연 わたしは 海・ふちの  
ない水/ 4연 わたしは 風/ 5연 わたしは 終りのない文章・はてしなく流れていく詩

· 시인은 ‘わたしは稲穂’의 표현에서와 같이 자신을 들판의 벼이삭과 등가  
로 묘사하게 되었을까.

多義的解釋が可能であることをコメントする。稲は実をいっぱいつけるように実力をつける、その一本一本がキラキラ輝いているように一人の人間として個性を発揮することができる<sup>14)</sup>

○ 위의 은유에서 사용된 관계식을 메모하고, わたしは○○에 등장하는 ○○  
의 이미지에 관하여 살펴보자. 가능하다면, 일본어로 이야기해 보게 한다.

- 稲穂のイメージ ; 充実した輝く生命力をもった豊かで力強いイメージ
- 羽ばたき・つばさの音のイメージ; 力強く自由に動き, 新しいことを求め続けるもの
- 海・苦い湖・ふちのない水のイメージ; 無限, 未知, 広がり, 自由自在
- 風 ; 自由自在, 障害物なし
- 娘・妻・母という名; その名前にしばれた生き方を強要されたくない  
名付けることは一つの役割に縛り付けること
- 終わりのない文章 ; 果てしなく 続く

여기에서 사용하는 은유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자신에게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해주는지, 은유가 우리의 사고와 감각을 어떻게 확장시켜주는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게 하면 좋을 것이다. 나아가, 현대사회에서의 여성의 인권이나 사회적 정치적 지위, 성별에 따른 기회균등의 문제에 관해서도 토론하게 하면 여성을 둘러싼 사회문제에 관해서도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시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각 연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대조적이다. 1 연을 예를 들어 살펴보자. 아래, 전반부는 나를 묶지 말아달라고 애원한다.

わたしを束ねないで  
あらせいとうの花のように  
白い葱のように  
束ねないでください  
후반부는 이와는 대조적이다.

14) 川島和子(1990), 「わたしを束ねないで」 甲斐睦朗(編), 『語句に着目にした読み方指導10』, 明治図書, pp. 75-89

わたしは稲穂  
 秋 大地が胸を焦がす  
 見渡すかぎりの金色の稲穂

결국 시인이 사용한 화려하면서도 현란한 직유와 비유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가? 은유를 사용하여 나는 묶이지 않는 채로 눈에 펼쳐져 있는 벼이삭이고 싶다고 주장한다. 가을에 벼이삭이 황금빛으로 온 대지를 물들이는 것처럼 자신도 밝은 존재로 반짝이고 싶다고 호소한다.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비유표현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 좋을 것이다.

이때 교수자는 시의 언어를 경험하는 일이 창의적 사고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문학작품을 통해 경험하는 언어는 상상력이 구축한 세계에서 그 상상력의 구조를 해석하고 상상의 세계에 뛰어들어야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sup>15)</sup> 학생들을 상상으로 만들어진 비유의 세계에 효과적으로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고정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시를 읽는다는 것은 이처럼 창의적 언어를 풀어내는 고차원적인 능력을 기르는 일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이 시는 5연으로 끝나고 있지만, 우리의 사설시조처럼 시 쓰기가 얼마든지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이 형식에 맞추어서 시를 계속 써 간다면 어떤 표현이 가능할까? 만약 학생들이 이러한 요구에 어떻게 응해야 할지 모른다면 첫 행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sup>16)</sup>

わたしをつながないで  
 飼い犬のように  
 わたしをつながないで  
 わたしは わし  
 周りの山野を自由に飛び回る鳥

15) 이주섭외 7인 공저(2014), 『국어과 창의성 신장 방안』, 박이정, p.16 참조

16) [https://detail.chiebukuro.yahoo.co.jp/qa/question\\_detail/q1061197925?\\_\\_ysp=44KP44Gf44GX44KS44Gk44Gq44GM44Gq44GE44Gn6a0844GE54qs44Gu44KI44GG44Gr](https://detail.chiebukuro.yahoo.co.jp/qa/question_detail/q1061197925?__ysp=44KP44Gf44GX44KS44Gk44Gq44GM44Gq44GE44Gn6a0844GE54qs44Gu44KI44GG44Gr) (검색일: 2018.09.29.)

わたしを閉じこめないで  
 ペットのよう  
 かごの中の鳥のよう  
 わたしをとじこめないで わたしは星  
 どこまでも続く無限の空

학생들이 아이디어가 막혀 문장을 이어가지 못하며 다음과 같은 제목을 제시해 문장을 이어가게 하면 직유 내지는 은유에 관하여 제대로 숙지하게 되고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도 갖게 될 것이다.

わたしを見せ物にしないで  
 わたしをはめないで  
 わたしを描かないで

이상, 시 속에서 비유를 사용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기법에 관해 관심을 갖게 하면 시인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보다 확실히 맛보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식의 비유를 자신의 글쓰기에 적용시켜 보면 비유표현으로 창의적인 언어생활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 4. 나오며

이상과 같이, 일본현대시에 나타난 비유표현을 중심으로 그 수업방안에 주목하여 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유는 명시적·설명적이며 은유는 암시적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유사성이 없는 것의 유사성을 발견하여 창조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표현기법이다.

둘째, 시에 나타난 직유와 은유는 속담이나 일상적인 삶속에서 사용되는 비유와 달리 독창적이며 풍부한 이미지와 상상의 세계를 맛보게 해준다.

셋째, 시 속의 직유와 은유 표현은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주제파악이나 감상에 도움이 된다.

넷째, 시인이 사용하는 은유는 애매함 때문에 난해하게 생각되지만, 그로 인

해 사유를 무한확장하고 창의적 언어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점도 있다.

이와 같은 직유와 은유표현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이러한 글쓰기를 실생활에 도입한다면, 『과블로네루다와 우편배달부』의 주인공 마리오처럼 참신한 시를 써서 연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고, 세상을 색다르게 보는 관점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자연과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유표현은 시교육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문덕수(1996), 『시론』, 시문학사, p.153.  
 배상문(2014), 『비유의 발견』, 북포스, p.7  
 이주섭외 7인 공저(2014), 『국어과 창의성 신장 방안』, 박이정, p.16.  
 장석주(2017), 『은유의 힘』, 다산책방, p.8.  
 鮎川信夫(1965), 「比喩論二題」 『鮎川信夫詩論集』, 思潮社, p.183.  
 川島和子(1990), 「わたしを束ねないで」 甲斐睦朗(編) 『語句に着目した読み方指導10』, 明治図書, pp.75-89  
 안토니오 스타르메타 글 · 권미선 옮김(1996), 『과블로 네루다와 우편배달부』, 사람과 책, pp.10-196.  
 옥타비오 파스 글 · 김홍근 김은중 옮김(1998), 『활과 리라』, 숲, p.47.  
 Zoltan Kovecses저 · 이정화·우수정·손수진·이진희 공역(2003), 『은유』 한국문화사, p.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6/2018090600251.html?utm\\_source=nave&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6/2018090600251.html?utm_source=nave&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검색일: 2018.09.06.)  
<http://balloon-rhetoric.atwebpages.com/example/simile.html> (검색일: 2018.09.08.)  
[https://torunotabi.at.webry.info/200609/article\\_9.html](https://torunotabi.at.webry.info/200609/article_9.html) 2018. 9.16, 齋藤正二 일본어 번역을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21888&cid=46645&categoryId=46645> (검색일: 2018.09.15.) 시해석 참조  
[https://detail.chiebukuro.yahoo.co.jp/qa/question\\_detail/q1061197925?\\_\\_ysp=44KP44Gf44GX44KS44Gk44Gq44GM44Gq44GE44Gn6aO844GE54qs44Gu44KI44GG44Gr](https://detail.chiebukuro.yahoo.co.jp/qa/question_detail/q1061197925?__ysp=44KP44Gf44GX44KS44Gk44Gq44GM44Gq44GE44Gn6aO844GE54qs44Gu44KI44GG44Gr) (검색일: 2018.9.29.)

논문 투고 일자 : 2018. 10. 14.
논문 심사 일자 : 2018. 11. 07.
게재 확정 일자 : 2018. 11. 09.

<要旨>

日本現代詩による比喩表現の授業方案

南二淑

本稿では、日本現代詩に現れた比喩表現を中心に、その教育方法に注目してみた。その結果をまとめると次のようになる。

第一に、直喩は、明示的・説明的であり、隠喩は暗示的という違いはあるが、その表現方法が類似性のないものの類似性を見つけて創造されるという点で、類似した表現手法である。

第二に、詩に現れた直喩と隠喩は格言や日常的な生活の中で使われる比喩とは異なり、独創的で豊かなイメージと想像の世界を味わわせてくれる。

第三に、詩の中の直喩と隠喩の表現は、詩人が伝えようとするメッセージやテーマを効果的に伝える役割をしており、テーマの把握や鑑賞に役立つ。

第四に、詩人が使用する隠喩は曖昧さのために難解に思えるが、それによって思考能力を無限に拡大し、創意的な言語生活を可能にさせる点もある。

表現技法に着目して、詩的な比喩表現の特徴をよく理解させ、これを作文や言語生活に導入させることは、もう一つの詩教育の可能性を開く方法であると思われる。

Teaching metaphorical expression through modern Japanese poetry

Nam, Yi-Sug

In this paper, metaphors in Japanese modern poetry were studied. Finding that first, the expressions of similes and metaphors were alike. They were created through discoveries of similar things that are not generally alike, even though both have different features such as elucidation and implication. Second, the similes and metaphors in poetry were original with an enriched imagination which the analogies, used in proverbs and everyday life, cannot provide. Moreover, the expressions of simile and metaphor in the poetry contributed to the effective communication of message and theme. Last, the intricate metaphors tended to cause difficulty in the understanding of poetry because of their ambiguity. However, they also stimulated to the development of an infinite expansion of thinking and creative language.

Teaching poetic analogies by focusing on expression techniques and promoting their application daily using language can open the possibility of education through poetry.